

### 지방없는 수도권 위주 부동산 정책

## 광주·전남 땅값 6개월째 하락

#### 서울은 0.2% 올라

수도권과 지방의 땅값이 양극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땅값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의 훈풍을 타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반면, 지방에선 하락세가 멈출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전국 땅값이 전달보다 0.06% 상승,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고 25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0.20%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고 인천(0.13%), 경기(0.03%) 등의 순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서울 강남구(0.32%), 서초구(0.30%), 송파구(0.30%)의 오름세가 눈에 띄었다. 이들 지역은 지난 3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선 뒤 지난달 상승폭이 더 확대됐다.

반면, 지방은 수도권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광주·전남을 비롯한 지방 땅값은 6개월째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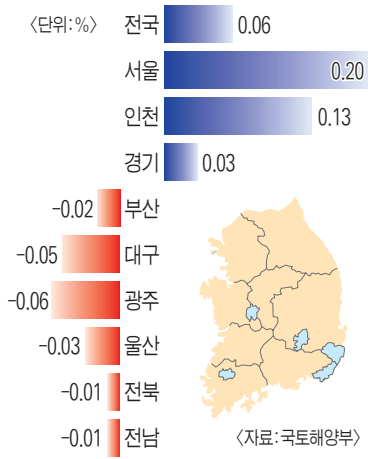
광주의 경우 지난달 땅값은 0.06% 떨어져 6개월째 오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0.49%로 처음 하락세로 돌아선 뒤 ▲12월(-1.31%) ▲2009년 1월(-0.23%) ▲2월(-0.14%) ▲3월(-0.11%) ▲4월(-0.06%) 까지 줄곧 떨어지고 있는 상황

이다. 다행히 하락 폭이 둔화 추세다. 전남도 비슷해 지난해 11월 0.55% 떨어진 뒤 6개월째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수도권 위주의 부동산 정책으로 수도권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서울 등의 땅값 상승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감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이어 수도권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2020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 변경안' 등 수도권 맞춤형 정책이 '악발'을 받으면서 땅값 상승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2009년 4월 시도별 지가변동률



(자료: 국토해양부)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측은 "수도권을 집중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추진되면서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가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수도권에 앞서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릴 만한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전국 토지거래량은 20만6천888필지, 2억1천366만㎡로 전년 동기 대비, 필지수는 23.1%, 면적은 9.8% 각각 감소했다.

/김지음기자 dok2000@kwangju.co.kr



제주산 과일 다 모였네  
를 선보였다.

신세계 이마트가 25일 국내 최고의 휴가지로 꼽히는 제주의 과일을 한자리에 모은 '제주 과일 특별 모음전'을 열고 제주산 밀감과 청귤, 한라봉, 참다래 등을 선보였다.

/연합뉴스

## “농협 금융·유통분리 시간갖고 자율 추진”

####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22일 “농협중앙회 사업 분리는 농협 스스로 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분리는 이른바 ‘신경(信經) 분리’로 불리는 신용사업(금융)과 경제사업(농축산물 유통)의 분리를 말한다.

최 회장은 이날 충남 태안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사업 분리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더라도 원만하게, 시간을 갖고 해야한다는 입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신경 분리 과정에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농협 자율’로 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농협 신경 분리는 금융 부문에 쏠린 농협의 인적·물적 자원을 유통 부문에 집중해 농협 본연의 ‘협동조합’

#### 광주신세계 백화점 ‘에코백’ 디자인 공모

광주신세계 백화점이 ‘제1회 신세계 에코백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신세계의 올해 경영방침인 ‘그린 신세계, 클린 컴퍼니’ 실천 방안의 하나로 전국 7개 신세계백화점과 122개 이마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공모전은 크레파스, 물감, 색연필 등을 이용해 디자인 한 것을 A3용지나 일러스트로 제작해 제출하는 ‘에코백 디자인 부문’과 다양한 소재로 직접 제작한 ‘에코백 제작부문’으로 나뉘어 치러진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28일부터 6월 14일까지 각 지점으로 접수하면 된다. 또 광주신세계 이마트는 28일부터 6월28일까지 ‘이마트 환경사랑 사진 콘테스트’를 연다.

공모전 및 사진 콘테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신세계닷컴(www.shinsegae.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기자 emlee@kwangju.co.kr

## “한국 내년 실업률 개선”

#### IMF “올 실업률 3.8% ... 선진국 중 최저”

올해 경기 침체 속에서 한국의 실업난이 선진국 중에서 가장 덜 심각할 것으로 전망됐다.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선진 33개국의 실업·고용 전망에서 한국의 실업률이 지난해 3.2%에서 올해 3.8%로 0.6%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같은 실업률 증가는 선진 33개국 가운데 일본(0.6%포인트)과 더불어 가장 낮은 것이다. 이는 올해 실업률이 증가해 고용 문제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선진국 중에는 충격파가 가장 작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작년과 비교한 올해 실업률 증가는

한국과 일본이 최저인 가운데 키프로스(0.9%포인트), 몰타·노르웨이(1.1%포인트), 스위스(1.2%포인트), 체코·네덜란드(1.3%포인트), 그리스(1.4%포인트) 순이었다.

반면 아이슬란드는 올해 실업률이 전년보다 8.0%포인트나 급증해 33개 선진국 중 최고의 실업률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스페인(6.4%포인트), 아일랜드(5.9%포인트), 싱가포르(4.4%포인트), 미국(3.1%포인트)도 매우 나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올해의 경우 33개 선진국 모두 실업률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만 내년에는 5개국의 실업률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 가운데 한국이 포함됐다.

한국의 실업률은 올해 3.8%에서 내년에는 3.6%로 0.2%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IMF는 내다봤다. 룩셈부르크는 6.8%에서 6.0%, 키프로스는 4.6%에서 4.3%, 아이슬란드는 9.7%에서 9.3%로 실업률 감소가 예상되는 5개국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 공기업 대외채무 100억 달러 육박

공기업들의 대외채무가 100억 달러를 육박하고 통화당국의 대외채무는 340억 달러에 근접하면서 각각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공기업의 대외채무는 지난 3월말 현재 99억6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시기의 84억3천400만 달러에 비해 17.5% 늘어났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4년 이후 최대다.

공기업 대외채무는 작년 6월말 89억9천100만 달러, 9월말 92억4천200만 달러, 12월말 97억5천600만 달러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다. 공기업들의 대외채권은 3월말 현재 9억3천600만 달러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국제보청기

본점: 061-227-9940  
충무점: 061-227-9970

순천점: 061-1752-9940  
목포점: 061-262-9200  
익산점: 063-851-2422

## 무상 최고 187만원 지원

### 에너지 최고 83% 절감 냉·난방시스템

**구입시 특별할인 혜택!**  
에너지 절감비용으로 할부금을 내고도 돈이 남습니다.  
(최대 원금별 사후보상금 확인)

**다우 열대시스템**  
- 냉방효과 30% 향상  
- 난방효율 15% 향상  
- 공기청정 기능  
- 24시간 원격제어 가능  
- 인체건강에 안전

**다우 열대시스템**  
- 냉방효과 30% 향상  
- 난방효율 15% 향상  
- 공기청정 기능  
- 24시간 원격제어 가능  
- 인체건강에 안전

다우 밀렉 가성공조시스템 062) 252-2900

## The One

### 세계 최고 MBA출신 경영전문가 재혼정보회사 선택한 까닭은?

"인연의 별간실 잇는 행복출발 더윈 경영진"

다윈 by (주)명씨출발

www.theone.co.kr

☎ 062)527-3388